

# 서구권의 북한 관광을 통해 본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

안진희\* · 배정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Visual Specificity of the Pyongyang Landscape - Perspectives of North Korea Tourism -

Ahn, Jin-hee\* · Pae, Jeong-Han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what way is the urban landscape of North Korea used today, and what features do people prefer in the North Korean landscap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yongyang landscapes and their effects, based on an analysis of Western tourists motivation for tourism in North Korea and preferred enjoyment-seeking experiences. Using data from the tourist agency specializing in Western tourism in North Korea and a location based photo-sharing service, the study interprets the visual distinctiveness of Pyongyang landscape. The study concluded that widely known risk to travelers in North Korea is in fact an attraction, making people want to visit directly. However, this risk was mitigated in practical experience by the overall intermediation of the tourism agency and locals' conscious behavior to keep their distance from foreigners. Next, the scope of National ritual attributes was expanded to the locals' daily life as well as large-scale events such as mass games and military parades only if for national holidays. Also, the most preferred factors contributing to North Korean tourism were based on departure from routine through mobilization of the residents. This indicates the extension that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eater state. The Pyongyang landscape represents a world politically isolated, people's congregated motion to display to the world, and people's lives hidden beneath a veil. These visualities fulfill the fantasy of Westerners regarding North Korea. Furthermore, these are superficial images that help create a basis to maintain the North Korea regime.

*Key Words: Western Tourists, Dark Tourism, Theater State, Travel Agency, Adventure, Illusion*

### 국문초록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서구권의 관광객의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북한 관광의 방식과 북한 체제의 함으로 만들어지는

---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을 해석했다. 다크 투어리즘과 극장 국가 이론을 토대로 서구권의 북한 관광 홍보 문구, 관광 에이전시 자료, 위치정보태그 기반 사진공유 웹사이트를 본 결과,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에 대해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의 위협성은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북한을 직접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매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관광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 관광의 과정에서 위험이 차단되며, 이로써 관광객은 관광의 계기로 삼았던 위험 속에서의 모험을 지속하게 된다. 관광객이 구경하는 대규모 국가 의례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까지 작동하여 극장 국가적 성격의 확장이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고립된 세계, 그 세계를 유지하고 보여주기 위한 집단의 몸짓, 베일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평양의 경관은 서구권의 북한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한편, 북한의 체제 유지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피상적 이미지이다.

*주제어: 서구권 관광객, 다크 투어리즘, 극장 국가, 관광 에이전시, 모험, 환상*

##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사회조직과 정치의식의 공간적 척도인 도시(Harvey, 1989: 6)는 충돌과 변화의 결과를 경관으로 표출한다. 도시 경관에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 투영된 평양의 경관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의 활용 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평양의 경관은 정치적 이념의 결과물이 라기보다 차별화된 특질로 재평가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은 평양 도시 경관의 논의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현재 사람들이 평양의 경관을 소비하는 방식과 선호하는 경관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북한 관광은 2008년 이후로 중단되었으나, 한국 외 국가의 북한 관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20퍼센트 증가했으며, 서구권 북한 여행 에이전시인 고려투어는 한 해 동안 약 6,000명의 서구권 국가의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다(Fifield, 2014). 북한 관광은 반드시 고려항공을 운항하는 공항<sup>1)</sup>을 경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sup>2)</sup>을 수반한다. 북한 관광은 비지속적이기도 하다. 관광객의 안전을 이유로 때때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국가 내부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서구권 관광객의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북한 관광의 방식과 북한 체제의 함으로 만들어지는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북한의 관광산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서부지역, 동부

지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이 수도 평양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다른 지역을 관광할 경우에도 평양에서의 일정을 포함하므로 이 연구의 장소 범위를 평양으로 한다.

서구권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을 진단하기 위해, 이 논문은 북한 관광에 대한 서구권 언론과 관광 에이전시의 표현 문구, 서구권 관광 에이전시 홈페이지, 위치 정보태그 기반 사진 공유 웹사이트를 연구를 위한 주요 매체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북한 밖에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환상과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볼거리와 체험을 파악했다.

북한 관광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홍보하는 언론과 관광 에이전시의 표현 문구는 북한과 북한 관광에 대한 서구의 관점을 대변한다. 또한 관광 에이전시 홈페이지는 북한의 볼거리와 체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태그 기반 사진 공유 웹사이트는 사진 촬영이 주로 이뤄진 장소와 특정 장소가 보여주는 시각적 특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관광 에이전시는 지속적으로 영어를 통해 북한 관광을 진행하는 세 에이전시 - 주체트래블(Juche Travel Services), 고려투어(Koryo Tours), 우리투어(Uri Tours) - 가 제공하는 2015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분석했고(Table 1 참조). 위치 정보태그 기반 사진 공유 서비스(<https://www.flickr.com/map>)를 활용했다(Figure 1 참조).

위 연구 대상을 통한 논문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선행 연구 단계로 북한 관광에 대한 서구권의 관점과 논의, 북한 관광의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III장은 서구권의 북한 관광 전문 에이전시 관련 자료와 장소 태그 기반 사진 공유 웹사이트의 장소 검색 결과, 순위를 통해 외부인이 평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이들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한다. IV장은 II장에서 고찰한 북한 관광에 대한 서구권 논의와 북한 체제 관련 이론을 토대로 III장에서 전개한 평양의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을 해석한다.

Table 1. Western travel agencies operated North Korea tourism

Travel agency	Website address	Agency location
Juche Travel Services	http://www.juchetravel-services.com/	London, UK.
Koryo Tours	http://www.koryogroup.com/	Beijing, China
Uri Tours	http://uritours.com/	New York City,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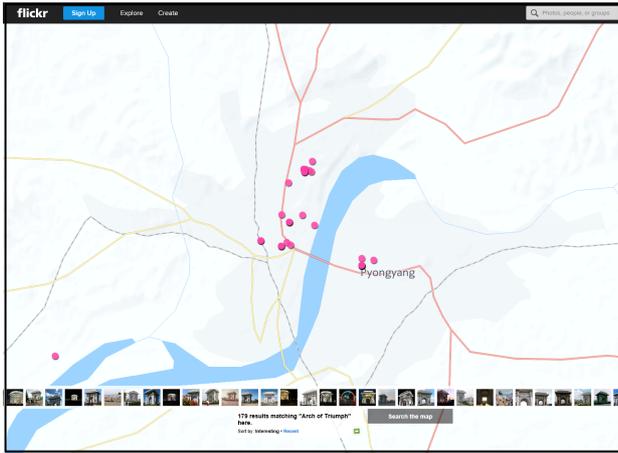


Figure 1. Searching tourism resources on the location based photo-sharing service(www.flickr.com/map)

Figure example: search for 'Arch of Triumph' taken in 'Pyongyang'

## II. 북한 관광에 투영된 서구권의 시각

### 1. 흥미로 작용하는 위험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국가로 보도되고, 2013년 미국 정부가 여행 자제 권고 조치를 발표한 북한(Fisher, 2013; Whitehead, 2013)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진다. 여행 정보를 보도하는 서구권 대중 매체들<sup>3)</sup>은 북한 관광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와 비밀을 가진 독특한 곳이라는 시각을 동시에 전달한다(Buda and Shim, 2015: 2).

장소의 위험성이 오히려 여행지의 매력이 되는 상황은 일종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명명된 이 여행은 위험과 정신적 불편함, 아픈 기억을 마주함으로써 기존의 여행 목적과 방식을 전복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즈마 히로키(Azuma, 2013: 11)는 다크 투어리즘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역사 속의 정신적·문화적 부채를 돌아보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아우슈비츠, 체르노빌 등 비극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고, 최근 북한이 다크 투어리즘의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sup>4)</sup>.

왜 어둠으로 정의되는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곳, 가장 과격한 공산주의 국가, 극심한 기근과 굶주리는 사람들, 지속적인 서구권

과의 대립, 핵무기, 이들은 북한 외 모든 국가의 문제를 합한 것보다 더 어둡다. 이는 가장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는" 목적지이며, 유래 없는 의례의 개성이 나타나는 국가이다<sup>5)</sup>.

아우슈비츠나 체르노빌과 같은 과거의 장소를 보는 것과는 다른 갈래로, 현재 진행 중인 위험한 현장을 둘러보는 관광 또한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보는 쇼"(Kamin, 2014)이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계자는 현장을 본 이들이 그곳의 일부가 될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이후 주변에 내전을 알리는데서 이 관광의 유익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Kamin, 2014).

북한 또한 정치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정세 속에서 어둠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실제로 북한의 체포 관련 발표도 관광객들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흥미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Rauhala, 2013)는 여행 상품 기획자의 말처럼, 호기심을 안고 가는 흔치않은 모험이 서구권의 북한 관광에서 큰 기저로 역할하고 있다. "북한을 여행하는 이들은 어둠의 상상을 불러내는데 있어 '판타지에 대한 열망'을 동원"(Buda and Shim, 2015: 4)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험성은 관광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에 가깝다.

한편, 북한 관광 수요가 아직은 아시아, 특히 중국이 대다수임을 지적하며, 서구권의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경험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존 코넬(Connell, 2015: 2)은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실제 상황을 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며, 노스텔지어, 휴식, 거리상의 가까움, 가격 대비 합당한 가치,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이 관광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중국인 관광객은 서구권 관광객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 내에서 경험하고자 하지 않았다"(Li and Ryan, 2014: 6)는 연구 결과 또한 제시되었다.

서구권과 아시아가 북한 관광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외교적 이해관계가 아시아 국가와 다른 서구권이 북한 관광을 다른 관점을 통해 경험하려 하는 현상은 북한을 표면적인 특질과 개성을 지닌 장소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향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 2.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이 만드는 이상

북한 관광 에이전시가 흔히 받는 질문은 '올해 메스 게임이 열리는가<sup>6)</sup>와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가<sup>7)</sup>와 같이 국가 행사

개최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들 행사가 취소될 경우<sup>8)</sup>의 대안은 광장에서서의 북한 주민의 단체 춤<sup>9)</sup>과 국제 노동절 행사<sup>10)</sup>, 봄친선예술축전<sup>11)</sup>으로, 모두 경기장과 광장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가 행사에 해당한다.

관광객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대규모 국가 의례와 관련 행사는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을 기반으로 한다. '극장 국가' 이론은 북한의 대규모 국가 행사가 곧 지도자의 정권을 지속시키는 원리임을 가리킨다. 극장 국가는 권력을 통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가 연극이라는 발상에 기반을 둔다(Geertz, 1980). 클리포드 기어츠는 1900년대 발리 왕국에서 통치자의 정치 권력이 정치 제도가 아닌 국가 권력을 공연하는 과시적 재현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Geertz, 1980: 4). 극장 국가가 지닌 가장 큰 효과는 연극을 통해 국가의 온건함을 유지시킨다는 점이다(Kim, 2010: 407). 참여 인원의 퍼포먼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전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당위성을 스스로 학습하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국가의 대규모 의례는 사회주의 국가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북한만이 유지하고 있다(Kwon and Chung, 2013: 12). 국가 의례가 주민의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점 또한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을 강화한다. 국가는 강제적 동원이 아닌 상징과 의례를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생산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민의 동원으로 이어진다(Chung, 2010: 2).

국민 전체가 동일한 시나리오를 통해 연극에 동참하는 연극자가 되어 하나의 극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극장 국가로서 북한이 지닌 특징이다. 각자의 연기를 통해 국가 전체를 극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북한에서 정치적 갈등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Jun et al., 2015: 59). 자발적 참여와 갈등의 소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합에서 작은 이탈조차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기반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균질함과 규모에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시킨다.

극장 국가로서의 북한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규모의 화려한 이상(理想)을 보게 하는 기반을 이끌어낸다. 다니엘 부어스틴(Boorstin, 1992: 185)은 "이미지는 실재나 이상(ideal)이 아니라 이상을 대체하는 것, 즉 가짜 이상(pseudo-ideal)"이라는 제언을 통해 현실을 가리는 이미지의 효과를 강조했다. "가짜 사건이 자연스런 사건을 압도"(Boorstin, 1992: 117) 하듯 화려함 외의 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감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 III. 평양 관광의 볼거리와 경험

#### 1. 특별한 모험으로서 평양의 볼거리

서구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북한 관광 에이전시는 홈페이지와 홍보 문구를 통해 여행지로서의 북한의 매력을 강

조한다. 북한을 규정짓는 주요 언어는 비밀, 고립, 운동과 같이 북한이 세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표현과 위협, 모험, 합법 등 북한 관광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Figure 2 참조). 관광지로서 북한에 대한 홍보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보다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기회 자체를 경쟁력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일에 싸인 국가,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미지로밖에 접할 수 있었던 곳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홍보 내용은 북한 관광을 특별한 모험으로 규정 짓는다.

홍보 문구가 북한의 경험 자체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다면 관광 일정을 통해서서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sup>12)</sup>. 주체트래블, 고려투어, 우리투어의 관광 프로그램에 나타난 일정은 평양의 여러 장소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Table 2 참조). 북한의 기념비적 조형물과 건축물, 교육기관, 박물관 등의 전시 기관뿐만 아니라, 전통 유적지와 공원 및 유원지 등 거치는 목적지들은 다양한 분류와 성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양한 목적지 중에서도 각종 메스게임과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이 행사들이 이뤄지는 장소인 능라도 5월1일 경기장(May Day Stadium), 김일성 광장(Kim Il Sung Square), 김일성 경기장(Kim Il Sung Stadium)은 장소 기반 사진 공유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 북한 관광의 가장 주요한 볼거리임을 명확히 한다(Table 3 참조). 북한 관광의 주요 목적이자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체제 선전 행사는 북한 관광을 지속시키는 장치로 역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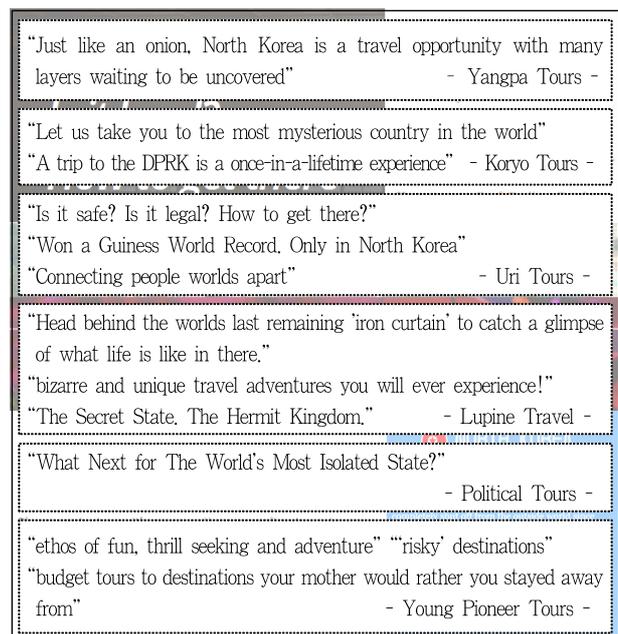


Figure 2. Phrases about North Korea tourism expressed by western travel agencies

Table 2. Tourist attractions stated to tour agency programs

Category	Designation
Mon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ch of Triumph</li> <li>Kim Il Sung Square</li> <li>Arch of Reunification</li> <li>Kumsusan Memorial Palace</li> <li>Mansudae Grand Monument</li> <li>Monument to the Party Founding</li> <li>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li> <li>Monument to the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li> <li>Chollima Statue</li> <li>Juche Tower</li> <li>Mangyongdae Native House</li> </u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im Il Sung University</li> <li>Mangyongdae Schoolchildren's Palace</li> <li>Pyongyang Embroidery Institute</li> <li>Pyongyang Conservatory of Music</li> <li>Grand People's Study House</li> </ul>
Stad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y Day Stadium</li> <li>Pyongyang Ice Rink</li> <li>Yanggakdo Football Stadium</li> <li>Kim Il Sung Stadium</li> <li>Chongchun Street Sports Village</li> </ul>
Park and recreation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eson Youth Park</li> <li>Moran Hill</li> <li>Pyongyang Central Zoo</li> <li>Munsu Water Park</li> <li>Pyongyang Folk Village</li> <li>Pyongyang Skate Park</li> <li>Mount Taesong</li> <li>Mangyongdae funfair</li> <li>Botanical Gardens</li> <li>Pyongyang Golf Course</li> <li>Ryugyong Health Complex</li> </ul>
Sho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oreign Languages Bookshop</li> <li>Paradise Department Store</li> </ul>
Food and be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kwon Paradise Microbrewery</li> <li>Diplomatic Club</li> <li>Okryu Restaurant</li> <li>Yanggakdo Microbrewery</li> <li>Haemaji Coffee Shop</li> <li>Manbok Restaurant</li> <li>Taedonggang Brewery</li> </ul>
Accommo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ryo Hotel</li> <li>Pothonggang Hotel</li> <li>Changkwangsan Hotel</li> <li>Yanggakdo Hotel</li> <li>Moranbong Hotel</li> </ul>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S Pueblo</li> <li>Korean Folklore Museum</li> <li>Party Founding Museum</li> <li>Pyongyang Film Studio</li> <li>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Museum</li> <li>Kimilsungia-Kimjongilia Exhibition Hall</li> <li>Three Revolutions Exhibition</li> <li>Central History Museum</li> <li>Korean Revolution Museum</li> <li>Railway Museum</li> <li>Mansudae Art Studio</li> <li>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Museum</li> </ul>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ranbong Theatre</li> <li>Mansudae Art Theatre</li> <li>People's Palace of Culture</li> <li>Moranbong Circus</li> <li>Military parade</li> <li>April 25th House of Culture</li> <li>East Pyongyang Grand Theatre</li> <li>Pyongyang Grand Theatre</li> <li>Pyongyang Circus</li> <li>International Cinema House</li> <li>Arirang Mass Games</li> </ul>
Traditional rem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edong Gate</li> <li>Chilsong Gate</li> <li>Pothong Gate</li> <li>Ulmi Pavilion</li> <li>Tomb of King Tongmyong</li> <li>Ryongwang Pavilion</li> <li>King Tangun's Mausoleum</li> <li>Pyongyang Bell</li> </ul>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yongyang Marathon</li> <li>May Day mass game</li> <li>Fireworks(Kim Jongil's birthday)</li> </ul>
Entertai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ari Shooting Range</li> <li>Mirim Horse Riding Club</li> <li>Pyongyang Golden Lane Bowling Alley</li> <li>Pyongyang Sweet Meat Restaurant</li> <li>Italian Restaurant</li> <li>Hana Electronics Restaurant</li> </ul>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yongyang Metro</li> <li>Taedong River Promenade</li> <li>Taedong River Cruise Boat</li> </ul>

2. 관람의 확장으로서 현지인의 생활

Table 3의 상위권에 있는 대규모 행사와 개최 장소 다음과

Table 3. Searching results by place tag of Pyongyang

No.	The number of photos	Search word	한글명
1	1,781	Arirang Mass Games	아리랑매스게임
2	654	May Day Mass Game	노동절매스게임
3	867	May Day Stadium	통라도 5월일경기장
4	532	Kim Il Sung Square	김일성 광장
5	525	Kim Il Sung Stadium	김일성경기장
6	411	Pyongyang Metro	평양지하철
7	345	Juche Tower	주체사상탑
8	210	Grand People's Study House	인민대학습당
9	202	Pyongyang Film Studio	평양영화사
10	216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Museum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11	177	Mansudae Grand Monument	만수대 언덕
12	164	Arch of Triumph	개선문
13	141	Kumsusan Memorial Palace	금수산태양궁전
14	130	Mansudae Art Studio	만수대창작사
15	103	Monument to the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16	95	Pyongyang Circus	평양서커스
17	77	Three Revolutions Exhibition	3대혁명전시관
18	77	USS Pueblo	푸에블로호
19	66	Tomb of King Tongmyong	동명왕릉
20	65	Kaeson Youth Park	개선청년공원
21	42	Moran Hill	모란봉공원
22	41	Arch of Reunification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
23	36	Pyongyang Ice Rink	평양빙상장
24	33	Pyongyang Grand Theatre	평양대극장

로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모뉴먼트와 건축물, 그리고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에서 촬영한 사진이 그 다음 순위에 위치했다. 순위 중 조선예술영화촬영소(Pyongyang Film Studio),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Monument to the Victorious Fatherland Liberation War), 만수대 언덕(Mansudae Grand Monument), 금수산태양궁전(Kumsusan Memorial Palace)은 체제 선전을 위한 것으로 평양 방문객이라면 반드시 거쳐 가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반면, 평양지하철(Pyongyang Metro), 인민대학습당(Grand People's Study House), 만수대창작사(Mansudae Art Studio), 개선청년공원(Kaeson Youth Park), 모란봉공원(Moran Hill) 등은 대중이 이용하거나 업무를 보는 현지인의 생활과 가까운 곳으로, 국가 행사 개최나 체제 선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관광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관광지 와 장소기반 사진공유 웹사이트의 순위를 통해 본 평양의 모습 은 체제 선전적 성격의 모뉴먼트, 대규모 국가 행사 개최 장소, 대중 이용 시설로 각 성격의 분류를 보인다.

공공시설과 건축물과 같은 대중 이용 시설의 관람은 현지인을 만나고 싶은 북한 관광 목적과 연관이 있다. 그곳에 가는 것 만으로도 경쟁력이 되고 비밀스럽고 고립된 곳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는 평양 관광이 베일에 감춰진 북한 주민의 삶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임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관광 에이전시 프로그램은 특정 장소에서 현지인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Table 4 참조). 설명에 따르면 관광객은 현지인과 섞여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현지인과 춤도 출 수 있다. 나아가 명절을 지내는 현지인들의 특별한 날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을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이벤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은 대규모 행사 참관에 이어 관광 에이전시가 내세우는 북한 관광의 두 번째 경쟁력이다.

Table 4에 따르면 현지인의 사소한 일상을 관람하는 것 또

한 관광의 일부가 된다. 교육시설을 방문할 때는 관련자 및 학생들의 공연이나 작업 시연을 관람하며, 이처럼 현지인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소한 모습을 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 IV.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

### 1. 시각의 통제로 만들어진 경관

다크 투어리즘의 양상을 통해 본 서구권이 북한 관광에 대한 열망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방어적 자세를 띤 국가 안에 들어가 미디어를 통해 보았던 이미지를 실제로 보고, 그곳에 은폐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Table 4. Description related to the locals of North Korea stated in the tourist schedule

Place	Description related to the locals of North Korea*
Pyongyang Conservatory of Music	"the top music university in the country. Here, we will have a chance to see students in music instruction and to learn about their curriculum"
Kim Il Sung Square	"You'll have the rare opportunity to really mix it up with the locals during the public dances, parades and other festivities that mark this important DPRK holiday"
	"the North Korean people are themselves enjoying the May Day holidays. Be prepared for mass dances in the square, picnic in the park with luring locals, tug-of-wars, volleyball games and more. A North Korean cultural experience like no other"
Kim Il Sung Square, May Day Stadium	"Party Foundation Day celebrations (including mass dancing in the square, military parades and even see some form of the famous Arirang Mass Games)"
Kim Il Sung Square, Moran Hil, Munsu Water Park	"Kim Il Sung Square and the Juche Tower. But we'll leave the rest of the afternoon to experience the unique festivities that go along with National Day! We may partake in a mass dance (you'll have to quickly learn the steps), picnic with locals on Moran Hill or visit the newly opened Munsu Water Park. This day will be a great chance to interact with local people and "do as the Koreans do""
Kim Il Sung University	"We'll have a chance to tour the libraries, classrooms and other recreational facilities"
Mangyongdae Schoolchildren's Palace	"Mansudae Schoolchildren's Palace for a special New Year's art performance"
Mansudae Grand Monument	"famous for its large, bronze statu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Visitors are asked to take part in local custom by bowing or presenting flowers at the feet of the statues"
	"70th Anniversary of the Party Foundation Day ... we'll do as the locals do by visiting the Mansudae Grand Monument"
Mansudae Art Studio, Pyongyang Embroidery Institute	"Mansudae Art Studio and the Pyongyang Embroidery Institute to see local artists at work"
Moran Hil	"walk through Moran Hill and don't be shy to join friendly families offering homemade liquor and dance with locals"
	"we'll stroll through Moranbong Park and see families picnic on their day off - you might even get pulled in for a dance by friendly locals"
	"Picnic with locals at the well-frequented Moranbong Park, popular gathering place for picnics, dancing, singing and all of the good stuff that makes a holiday fun"
Pyongyang Skate Park	"be warned: the park will be packed with local kids who love to skate"
Local home visiting	"we'll try some traditional rice cakes (songpyeon), a must for any Korean on New Year's day. We're working on a possible family visit to see how the local North Korean people celebrate this important day (to be confirmed)"

\* The sentences cited from the website article to guide the schedule: Koryo Tours([http://www.koryogroup.com/travel\\_groupTours.php](http://www.koryogroup.com/travel_groupTours.php)), Juche Travel Services(<http://www.juchetravelservices.com/the-tours/group-tours>), Uri Tours(<http://uritours.com/tours>)

관광 일정에서 관광객의 시선은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 관광은 관광지도총국(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4: 71)의 규제 하에 모든 일정에서 단체의 경우 항상 2명의 북한 현지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대동한다<sup>13)</sup>.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관광객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뉴스로 보도되는 북한의 외부인 체포나 구금은 불법 촬영 목적의 입국이나 주민의 개종 시도와 북한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이전시의 입장이다<sup>14)</sup>. 북한이 우려한 일들은 대부분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막으면 방지되는 것으로, 관광객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에이전시는 북한이 정한 범주 밖의 행동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주민의 학습된 거리감 또한 현지인과의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에이전시는 북한 주민과의 피크닉, 일반 가정과 교실 방문을 통해 생활 속 북한 주민을 만나고 북한의 일상을 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외국어가 널리 통용되지 않는 북한의 언어 장벽 이외에도 외국인 자체를 경계하는 북한 주민의 성향은 애초 서로간의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sup>15)</sup>.

평양에서의 모든 일정과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가져왔던 '북한을 가는 것의 위험성'은 보는 방식의 규제를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다크 투어리즘 범주의 북한의 어둠과 위험은 이목을 끄는 환영(illusion)으로 존재할 뿐이고, 관광지의 참신함으로 작용했던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군사적 위험, 베일에 싸인 주민 생활은 관광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보거나 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참사나 재해와 같은 비극의 과거를 보존하거나 상징한 장소를 지니고 있지 않고, 폭격이 일어나는 실시간 위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관광의 구조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홍보에 이용되었던 '북한'이 연상시키는 고립과 위험의 이미지는 관광 일정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신 "특이함과 흔치 않음"(Buda and Shim, 2015: 2)이라는 관광지로서의 참신함을 충족시켜 주는 평양을 확인할 수 있다.

## 2. 극장 국가적 성격이 생산하는 경관

에이전시가 홍보에 활용한 북한의 미스터리함과 기묘함은 대규모 국가 행사가 보여주는 장관의 이미지를 통해 지속된다. 수많은 사람의 실시간 동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압도적 크기의 볼거리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대표적 국가 행사인 메스게임은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체제를 선전하고 엘리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 간의 지배적 의사소통을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어떻게 그들 스스로에게 보여주는지"(Meyerhoff, 1986: 261)를 엿볼 수 있는 경험이다.

그러나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인에게 메스 게임이란 "만 육천 개에서 삼만 개에 이르는 각 '픽셀'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머리들의 실루엣으로 배열되어 마치 커다란 LED 스크린 처럼 보이는" (Terry and Wood, 2015: 181) 광경이다. 총천연색의 웅장함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수고까지 묵도함으로써 기이함을 느끼게 한다. 평양을 가는 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볼거리인 대규모 국가 행사는 만드는 이들과 이것을 구경하는 이들 간의 전혀 다른 이해를 제공한다.

Chung(2010: 34)은 메스 게임과 같은 국가 의례가 "문화적 연기"임을 지적한다. 국민 전체가 동일한 시나리오 하에서 일종의 연기를 선보임으로써 그들의 움직임은 연극이 되고, 장소는 무대가 되어 하나의 극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메스 게임뿐만 아니라, 군사 퍼레이드, 노동절 행사 등 대규모 국가 행사 전반의 동원력을 설명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핵심이다.

주목할 점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북한의 국가 기념일 기간에 한하여 주민의 문화적 연기가 생활 전반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외국인의 눈에 띄는 것을 경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수줍음을 느꼈던 북한 주민은 북한 국경일 기간에 한해서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실제로 관광 에이전시는 현지인을 쉽게 찾고, 그들이 외국인과 더욱 상호작용하길 원한다면 북한의 국경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흔쾌히 답소를 나누고, 춤추고, 집에서 만든 음료를 나누기 때문이다<sup>16)</sup>. 이 시기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단체 춤을 추는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에게 춤을 보여주고 함께 추는 것을 유도하며, 국가 휴일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국경일의 집단 체조와 퍼레이드와 같은 집단 의례에서 나아가 특정 시즌에 한해 외국인에 대한 경계를 풀고 보여주는 즐거운 모습은 공적 영역이 일상적인 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타인의 시각을 전제로 성립되는 일종의 연기이다. 북한 주민이 보여주는 의례로서의 연기는 특정 장소에서의 상황을 하나의 극이자 균질화된 경관으로 보이도록 한다. 극장 국가적 성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양의 경관은 서구권 관광객이 좋아하는 북한의 시각적 특수성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V. 결론

널리 알려진 북한의 위험성은 오히려 북한을 직접 가보고 싶도록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사회와 언론이 북한 관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수록 관심은 증대되며, 위험한 장소를 직접 갈 수 있다는 점은 북한 관광이 모험이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관광 트렌드와 맞물려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관광에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북한이 지닌 위험성은 차단된다. 하나는 관광 에이전시의 총괄적 중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인에 대한 현지인의 거리감 확보이다. 북한 관광 프로그램은 현지 가이드에 의해 감상의 방향이 규정되며, 이로 인해 관광객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 당한다. 또한 외부인을 멀리하는 현지인의 행동은 관광객과의 접촉 기회를 차단시킨다. 두 요인은 관광객이 실질적 위험으로부터 이격된 상태에서 모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조건이다.

서구권 에이전시의 홍보 문구, 관광 일정, 장소 태그를 기반으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본 평양은 체제 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모뉴먼트와 건축물, 집단 체조와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국가 행사와 그것이 이뤄지는 장소, 대중 이용 시설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경관의 성격이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각각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서구권의 환상이 투영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환상이란 각각 정치적으로 고립된 세계, 그 세계를 유지하고 보여주기 위한 집단의 몸짓, 배일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으로 대변되는 북한에 대한 피상적 이미지이다.

관광객이 스스로의 환상을 통해 본 평양의 시각적 특성은 북한의 극장 국가적 성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의 온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주민 각자가 맡은 역할은 마스크 게임이나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국가 공휴일 기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관광객의 시각을 전제로 한 장소 특정적 시나리오이다.

결과적으로 평양 경관의 시각적 특수성은 체제의 온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극과 무대, 그리고 에이전시가 통제된 시각을 통해 유지되는 북한에 대한 관광객의 환상의 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평양이 지닌 물리적인 경관의 고유성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서구권의 시각이 우선 작용하며, 이것이 북한이 만들어낸 환형과 맞물림으로써 지속적인 경험을 이끌어낸다. 특정 경관에 대한 선호에는 물리적 경관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그것에 투영되는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 1. 고려항공은 북한 국내선 외에 해외 직항노선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양과 러시아의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에 취항하고 있으나, 주요 북한 관광 에이전시는 베이징 공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상하이 직항노선은 2015년 개통되어 아직 초기 단계이다.

주 2. 북한관광 비용은 가장 많은 7박을 기준으로 1,690유로(250만 원)이고, 북한에서 쓰는 가이드 팁 등 경비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 정도이다(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3: 256).

- 주 3. Buda and Shim(2015: 2)은 북한 관광에 대한 논조를 전했던 대중매체로 Business Week, CNN Travel, Huffington Post, The Guardian, The Telegraph,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 Time Magazine을 선정했다.
- 주 4.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들(<http://www.dark-tourism.com/index.php/north-korea>, <http://www.thebohemianblog.com/dark-tourism>)이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지 중 하나로 북한을 선정하였다.
- 주 5. 다크 투어리즘 닷컴의 운영자 피터 호헨하우스(Peter Hohenhaus)가 북한을 여행한 후의 감상이다(<http://www.dark-tourism.com/index.php/north-korea> 참조).
- 주 6. 주체트래블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매년 마스크 게임의 개최 여부를 꼽았다(<http://www.juchetravelservices.com/news> 참조).
- 주 7. 고려투어 자주 묻는 질문란에 군사 퍼레이드의 개최 여부를 안내했다([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 참조).
- 주 8. 2014년에는 마스크 게임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 주 9. 북한 주민들이 국경 공휴일에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추는 춤으로, 사고 춤의 형식을 지닌다.
- 주 10. 5월 1일로, 경기장에서 각종 단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주 11. 4월 중순으로,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 공연예술단의 야외행사가 주를 이룬다.
- 주 12. 북한 관광은 관광객의 독립 행동이 불가능하고 전 일정에 에이전시 측 가이드와 북한 현지 가이드를 동행해야 한다. 이로써 중개자는 일정 안내뿐만 아니라, 감상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총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관광 에이전시는 부족한 관광 정보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유발하는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일정에서부터 각 일정의 특이사항, 일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술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 주 13. 모든 개인 관광 일정에는 조선국제여행사(KITC) 또는 그곳에 소속된 지역의 전문 한국어(Korean) 가이드 2명이 동행한다. 고려투어 홈페이지의 개인 관광 안내([http://www.koryogroup.com/travel\\_independentTours.php](http://www.koryogroup.com/travel_independentTours.php))를 참조했다.
- 주 14. 북한 여행의 안전성 문의에 대해 고려투어는 “미국은 미국인의 북한 관광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본 에이전시 또한 이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숙달된 전문 스태프와 가이드는 북한 방문객이 안전하고 놀라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동행하는 스태프와 가이드는 여정 동안 그들의 배이징 본사와 연결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 영사관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이미 북한은 세계에서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임 또한 기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투어의 트래블 어드바이스([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safety](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safety))를 참조했다.
- 주 15. 여정 중에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려투어는 “평소 생활 속의 북한 주민은 그들의 성향 상 접촉이 어렵다”고 답한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최적의 장소, 예를 들어 국제 노동절 마스크 게임이나 김정일화 쇼를 하는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을 이끌 것을 약속했다. [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talktolocals](http://www.koryogroup.com/travel_travelAdvice_faq.php#talktolocals)를 참조했다.
- 주 16. 위의 사이트.

## References

1. Azuma, H., ed.(2013) Chernobyl Dark Tourism Guide. Translated by J. Y. Yang. Seoul: Mati Books, 2015. Azuma, H., ed.(2013) Chernobyl Dark Tourism Guide. 양지연(역),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 서울: 마티, 2015.
2. Boorstin, D. J.(1992)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Vintage Books.
3. Buda, D. and D. Shim(2015) Desiring the dark: 'A taste for the unusual' in North Korean tourism?. Current Issues in Tourism 18(1):

- 1-6.
4. Chung, B. H.(2010) Symbol and ritual in the theater state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2(2): 1-42.  
정병호(2010)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22(2): 1-42.
  5. Connell, J.(2015) Shining light on the darkness. Placing tourists within North Korean tourism. Comment on: Desiring the dark: 'A taste for the unusual' in North Korean tourism?. *Current Issues in Tourism* 17(April): 1-7. doi: 10.1080/13683500.2015.1032896
  6. Fifield, A.(2014) September 10. North Korea tries to lure tourists to earn foreign currency, but two now on trial. *The Washington Post*.
  7. Fisher, M.(2013) November 20. The U.S. just issued its harshest travel warning against North Korea in 18 years and no one knows why. *The Washington Post*.
  8. Geertz, C.(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9. Harvey, D.(1989) *The Urban Experience*. Oxford: B. Blackwell.
  10. Jun, S. I., M. Y. Kim and E. H. Cho(2015) Power and space: The capital planning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 21-40.  
전상인, 김미영, 조은희(2015)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50: 21-40.
  11. Kamin, D.(2014) July 15. The Rise of Dark Tourism: When war zones become travel destinations. *The Atlantic*.
  12. Kim, K. R.(2010) On the study of "Theater State" in Daehan Empire of the Emperor Gochung: Analyzing the cultural performance with the visual spectacles. *Journal of Korean Theatre Studies Association* 40: 125-162.  
김기란(2010) 대한제국기 극장국가(theater state) 연구(2): 스펙터클의 문화사회사적 분석을 통한 문화적 퍼포먼스 고찰의 한 방법. *한국연극학* 40: 125-162.
  13.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2013) *KCTI Trends of North Korea Culture No. 8*. Seo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KCTI 북한문화동향 제8집. 서울.
  14. Korea Tourism Organization(2004) *Tourism Resources of North Korea*. Seoul.  
한국관광공사(2004) 북한 관광자원. 서울.
  15. Koryo Tours. Information on Travel to the DPRK. <http://koryogroup.com/PDF/koryo-tours-brochure-2014.pdf>
  16. Kwon, H. I. and B. H. Chung(2013)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Paju: Cjangbi.  
권현익, 정병호(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17. Li, F. and C. Ryan(2014) Chinese tourists' motivations and satisfaction of visiting Nor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12): 1-19.
  18. Meyerhoff, B.(1986) 'Life not death in Venice': Its second life. In E. M. Bruner, V. W. Turner, eds., *The Anthropology of Experi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261-288.
  19. Rauhala, E.(2013) December 1. Detention of 85-year-old hasn't stopped tourists from traveling to North Korea. *Time*.
  20. Terry, D. and A. Wood(2015) Presenting Juche: Audiencing North Korea's 2012 Arirang Mass Games.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35(2-3): 177-201.
  21. Whitehead, K.(2013) November 23. What can tourists expect when visiting North Korea?. *CNN*.
  22. <http://www.dark-tourism.com/index.php/north-korea>
  23. <http://www.flickr.com/map>
  24. <http://www.juchetravelservices.com>
  25. <http://www.koryogroup.com>
  26. <http://www.thebohemianblog.com/dark-tourism>
  27. <http://uritours.com>

---

Received : 20 June, 2016

Revised : 25 July, 2016 (1st)

16 August, 2016 (2nd)

Accepted : 16 August, 2016

3인익명 심사필